일제강점기의 신라고분조사연구에 대한 검토

차 순 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문위원)

Ⅰ. 머리말

Ⅱ. 한국고적조사와 일본 연구자 그리고 신라고분
1. 한국에 대한 인류학적 관심의 시작 (1886~1899)
2. 신라고분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와 발굴조사(1900~1909)
3. 조선총독부에 의한 신라고분조사 (1910~1919)
4. 금관총의 발견에 따른 신라고분 발굴조사(1920~1929)
5. 조선고적연구회와 신라고분 (1930~1945)

Ⅲ. 맺음말

국문 요약

근대 초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를 비롯한 일본인 관학파 연구자들은 신라고분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유적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수집활동을 했다. 이들은 초기에는 메이지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한국이 식민지화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고고, 미술, 건축, 인류학, 민속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조사를 하였다. 이들이 신라고분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조사한 목적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와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왜곡된 시각이 나타나기도 한다.

1886년부터 한국의 고분과 출토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방한 조사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1904년 세키노가 한국에서 조사한 건축조사 보고서인 『한국건축조사보고(韓國建築調査報告)』에는 오릉을 비롯한 여러 고분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되었고, 1906년에는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최초로 소금강산에 위치한 '북산고분(北山古墳)'과 황남동 남총(南塚)에 대한 발굴조사를 한 후,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과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의 구조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이 이루어졌다. 1909년 건축학을 전공한 야츠이 세이이치(谷井第一)는 서악동 석침총(石枕塚) 발굴조사에서 작성한 석실의 평면도와 단면도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최초로 제작된 유구실측도면으로 수치가 표현된 점에서 이전의 스케치된 그림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또한 이후 발굴조사에서는 이러한 유구 실측도면의 작성은 계속 이어진다. 이마니시와 야쯔이는 신라고분의 입지적 특징, 분구의 형태와 규모, 출토유물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적석목곽분과 횡혈식석실분은 서로 연대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에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과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을 시행하고 고적조사위원회와 박물관협의회를 설치했다. 박물관이 활동하게 되면서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유적을 조사하는 사업들은 모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얻어야 됐다. 1921년에는 금관총(金冠塚)이, 1927년에는 서봉총(瑞鳳塚)이 각각 발굴조사되면서 경주의 대형 적석목곽분은 화려한 출토유물로 주목을 받게 되지만, 전국 각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고분들에 대한 보고서 발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미발간 보고서가 간행되었지만, 서봉총과 같이 중요한 고분들에 대한 보고서가 아직 출판되지 못한 점은 당시의 한계로 볼 수 있다. 1920년대 후반에는 노모리 켄(野守健)이

지적도를 기초로 제작한 경주고분 분포도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155기의 고분의 규모와 위치를 명기한 자료로 시내에 소재한 여러 고분군의 전체 모습을 확인시켜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1930년대부터 아리미츠 쿄이찌(有光敎一)와 사이토 타다시(齋藤忠)는 다수의 적석목곽분과 횡혈식석실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한 묘제에 여러 가지 형식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복잡하게 중복된 모습으로 노출된 적석목곽분에 대한 발굴조사경험은 이전에 이루어진 발굴조사와 보고서간행 등에 있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에 지난 근대~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신라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때 조사된 여러 유적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재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고고학사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신라고분(新羅古墳), 발굴조사(發掘調査),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Ⅰ. 머리말

신라고분이 한국 고고학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지난 과거 대한제국 말기에 경주를 방문한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거대한 신라고분의 분구를 보고 놀라서 말하기를 "조선은 분묘의 나라"[1]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 여러 곳에서는 삼국시대의 고분이나 분묘들을 조사하고 있고, 매년 방대한 양의 발굴조사보고서가 출판되고 있다. 지난날에는 한 두기 정도의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한 후, 그 성과에 대한 연구물로 한 권의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한 지역 혹은 특정 고분군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연구고찰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수의 고분들이 발굴조사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여러 학술잡지들에는 고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논의된 내용들이 해마다 새롭게 발표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이들 고분, 특히 삼국시대의 고분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고분으로 인식하고 조사를 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연구사적 시각으로 살펴볼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근대 고고학이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과거나 지금 현재에 이르는 전 기간을 살펴볼 때, 대한제국말기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점이 근대 한국고고학의 시작이란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조선의 실학자들 사이에서는 고적과 왕릉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왔고, 조선 왕실에서도 경주와 개성에 소재한 왕릉들에 대한 관리와 제향을 지시한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되는 사실로 볼 때, 당시에 이미 선대 왕묘에 대한 보호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관리기간이 결국 거대한 고총고분인 '신라고분'에 대한 관심으로 바로 이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주에 거주하고 있는 박(朴)·석(石)·김(金)씨 세 문중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조상의 무덤과 족보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를 제공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석묘나 '벼락도끼(雷斧)'로 대표되는 석촉, 석부 등에 대한 유물을 실견한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시각을 고고학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들 수 있다.[2] 특히 조선시

1) 今西龍, 1906, 「新羅舊都慶州附近の古墳」, 『歷史地理』第十一卷第一號 歷史地理一百號記念百名家論集, pp.129~131.
今西龍, 1908, 「慶州に於ける新羅の墳墓及び基遺物に就て」(第一回), 『東京人類學會雜誌』第二百六十九號, 東京人類學會, pp.395~405.

대 후기 실학의 등장으로 고증학이 성행하면서 당시 조선 최고의 금석학자인 김정희에 의해서 연구된 각종 금석문 연구는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 초기적인 고고학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말기에 국내 실학파 연구자들과 중국 청의 고증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의 존재는 한·중 양국 연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고대의 비문조사와 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자료로 당시 조선에서 고적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일본 에도(江戶)시대에 이루어진 고물에 대한 관심과 호고주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련의 서적들에 표현된 당시 지식인들의 관심 등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이러한 해석들은 유럽에서 근대고고학이 성립하기 이전의 지식인들 사이에서의 생각과 유사하므로, 조선시대에 자생적으로 고고학이 학문으로서 발전할 수 있었음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884년 갑신정변 이후부터 조선(이후 대한제국)에서 일본인들이 했던 고적조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신라고분에 대한 인식과 연구의 시작 및 전개과정 그리고 발굴조사 보고서, 고분관련 논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성과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발굴자료 전반에 대한 재정리작업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따라서 이 글은 신라고분의 인식과 연구의 시작 그리고 연구의 전개과정과 보고서 및 관련 논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성과물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발굴자료 전반에 대한 재정리작업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필자가 사용할 신라고분의 시기구분은 당시에 발굴된 신라고분 중 그 학술상의 중요성과 발굴조사후 학계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여 모두 5기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안은 각 시기에 이루어진 신라고분에 대한 연구성과와 획기를 그을 수 있는 대형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그리고 발굴조사 기관의 변화를 기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고고학사의 첫머리를 여는 초창기의 연구활동에 대한 재정리작업의 필요와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3)]

---

2) 이선복, 1988, 『고고학개론』, 학술총서101, 이론과 실천, pp.223~226.

3) 한국의 근대고고학에 대한 시기구분문제에 대해서는 이선복과 부乙女雅博가 각각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선복 - 제1기(19세기말~20세기초), 제2기(20세기초 10년간), 제3기(1916~1945)
이선복, 1988, 『고고학개론』, 학술총서101, 이론과 실천, pp.227·228.
부乙女雅博 - 1) 東京帝國大學의 調査(1900~1909), 2) 總督府의 第1次 古蹟調査(1910~1915), 3) 總督府新制下에서 第2次 古蹟調査(1916~1920), 4) 總督府古蹟調査課의 第3次 古蹟調査(1921~1930), 5) 朝鮮古蹟研究會의 第1次 古蹟調査(1931~1932), 6) 朝鮮古蹟研究會의 第2次 古蹟調査(1932~1935), 7) 朝鮮古蹟研究會의 第3次 古蹟調査(1936~1945)
부乙女雅博, 2001, 「新羅の考古學調査「·○○年」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표 1. 일제강점기 신라고분 연구의 획기구분안(필자안)

시기구분	연 도	조사내용 및 특징
제1기	1886~1899	일본 인류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괄적인 자료조사 활동시기.** 이후 일본 관학파들의 조사에 단초를 열었던 시기
제2기	1900~1909	1906년 이마니시 류에 의한 최초의 신라고분(황남동 남총, 동천동 북산고분) 조사, 1909년 야츠이 세이이치에 의한 서악동 석침총 발굴조사는 **신라고분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
제3기	1910~1919	조선총독부에 의한 신라고분 표본조사 실시. 전국적인 고분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사. 고적조사보고서 발간.
제4기	1920~1929	금관총 발견에 따른 신라고분 발굴조사.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주관아래 다수의 중·대형 신라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 초호화판 보고서 발간– **식민통치의 정당성 홍보수단으로 활용.**
제5기	1930~1945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학술조사의 어려움으로 **조선고적연구회 창설** (경주, 평양, 부여 등지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짐.) 경주시가지 확장에 따라서 **중·소형 신라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짐.

Ⅱ. 한국고적조사와 일본 연구자 그리고 신라고분

1. 한국에 대한 인류학적 관심의 시작(1886~1899)

1868년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표방한 일본은 근대문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많은 유럽과 미국의 학자와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토쿄제국대학 교수 혹은 오사카 조폐창의 고문 등 사회 여러 방면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들 중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Edward Sylvester Morse), 존 미른(John Milne), 윌리엄 골란드(Willam Gowland), 하인리히 시볼트(Heinrich Siebold), 네일 고든 먼로(Neil Gordon Munro)와 같은 이들은 고고학 소양을 갖춘 연구자로 일본에 있는 여러 유적들에 대한 조사연구와 고고학 관련 책자를 집필하였다.[4] 하지만 당시 외국인들에 의해서 도입된 고고학이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계기는 1877년 동경대학 생물학교수로 패류연구가인 미국인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Edward Sylvester Morse)가 도쿄(東京) 시나가와구(品川區)에 위치한 오오모리패총(大森貝塚:

4) 齋藤忠, 1985, 「四 日本の考古學に貢獻した外國の人びと」, 『考古學史の人びと』, 第一書房, pp.98~137.

"Shell Mounds of Omori")에 대해서 학술적인 발굴조사[5]가 이루어진 후 점차 국내에 소재한 여러 유적들에 대한 조사가 확산되게 된다[6]. 특히 일본 오사카 조폐창에서 1872~88년까지 근무했던 영국인 화학자 윌리엄 골란드(Willam Gowland : 1842~1922)가 일본에 체류하던 기간 중 실시한 고분조사를 통해서 도입된 유구에 대한 사진 촬영법과 도면작성법 등을 통해서 당시 초보적인 수준의 일본 고고학의 조사방법론이 유럽 고고학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진 점[7]을 감안한다면, 한국에 고고학이 도입되기 시작하던 근세 초기에 대해서는 고찰할 필요성이 크다.

메이지 정부는 한국을 병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본인 관학자들과 군인 그리고 일반인들을 한국으로 보내며, 이들이 수집한 자료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이 되어서 한국에 대한 정책에 이용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국내와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기별로 정리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8]

인류학자인 츠보이 쇼고로(坪井正五朗)가 1886년에 창립한 동경인류학회에서 발간한 『동경인류학회보고(東京人類學會報告)』(1911년에 『인류학잡지(人類學雜誌)』로 제호를 변경함)에 게재된 내용 중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69건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1896년부터는 중국보다는 한국에 대한 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토기」와 일본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과의 비교, 인종론적인 관심과 일본민족의 계통에 대한 관심 등의 증가에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9] 특히 『동경인류학회보고』에 실려 있는 기사 내용 중에는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 거류민들이 수집한 유물들에 대한 소개기사와 유적에 대한 답사기행문도 소개되어있다.

1886년 12월에 발간된 『동경인류학회보고』 제2권 제10호에 게재된 '조선에서 출토된 토기 및 석기'라는 기사는 이 잡지에 최초로 등장하는 한국 관련 내용으로 한국에 거주했다가 귀국한 일본인이 수집한 유물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주 반월성

---

5) Edward Sylvester Morse, 1879, 『大森介墟古物篇』
E. S. Morse著, 近藤義郎·佐原眞 訳, 1983, 『大森貝塚』, 岩波文庫.

6) 이 시기에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고고학적 성과는 하기 책자에 잘 정리되어있다.
齊藤忠, 1980, 『年表てみる日本の發掘·發見史』①奈良時代~大正篇, NHKブックス370, 日本放送出版協會.

7) Victor Harris·小田宏範·大塚初重·後藤和雄,, 2003, 『WILLIAM GOWLAND』 -THE FATHER OF JAPANESE ARCHAEOLOGY-, 朝日新聞社.

8) 이선복, 1988, 『고고학개론』, 학술총서101, 이론과 실천, pp.227·228.
早乙女雅博, 2001, 「新羅の考古學調査「·○○年」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pp.53~106.
內田好昭, 2001, 「日本統治下の朝鮮半島における考古學的發掘調査(上)」, 『考古學史研究』 第9號 -特輯 關野貞と朝鮮古蹟調査-, 京都 木曜クラブ, pp.59~90.

9) 大庭重信, 1996, 「『人類學雜誌』に見る周邊地域關聯記事の傾向」, 『考古學史研究』 第6號, 京都木曜クラブ, pp.45~54.

에서 출토된 유개고배와 대부파수부배를 소개하면서, 유물이 들어있던 상자 뚜껑에 적혀있는 묵서명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10]

"此器得於慶尙道慶州半月城內 羅朝宗廟遺墟 半月城羅朝所築也. 自羅末計今癸未合爲千有余年. 羅末盛唐之季世也. 羅麗之世猶尙質朴 故至於國享祭器 皆如此所重有別 莫用他處堀地埋藏也. 大朝鮮國慶尙道大邱淸湖蔡奎庠."

이 내용을 살펴보면 1883년에 대구에 살았던 채규상은 경주 반월성 주변에서 수집한 토기를 당시 제사에 사용하던 제기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기록으로 볼 때 19세기말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당시 사용하던 기물(목기 · 사기 · 유기 · 칠기 등)들과 구분되는 유물(즉 신라토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 유물의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오래된 고기(古器), 즉 신라시대의 유물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유물들이 어떤 발견과정을 통해서 수집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채규상의 경우 경주 반월성 안에 있는 신라의 종묘 옛터에서 얻었다고 기술한 점으로 볼 때, 당시 반월성 주변의 고총고분군 주변의 지표면에 우연히 노출된 고분부장품을 수집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 토기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도 계속 확인되며,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수집한 자료들은 간단한 스케치와 사진 등을 통해서 보고된다.[11] 그리고 갑신정변 후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金玉均)이 동경인류학회 회원인 細木松之助에게 한국의 토기제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내용[12] 등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당시 일본의 인류학 연구자들은 한국의 정세와 풍습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고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기 외에도 한국의 고분에 대한 관심은 당시 인류학자들의 주요 연구대상 중 하나였는데, 조선 왕릉과 사대부의 분묘 형태와 석물들에 대한 소개도 있다.[13]

따라서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일본인 연구자들의 관심은 인류학적 관찰대상으로서 한국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그 관심분야는 전반적임을 알 수 있다.

2. 신라고분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와 발굴조사(1900~1909)

10) 淡崖, 1886, '朝鮮ニテ堀出セル土器及ビ石器', 「雜記」, 『東京人類學會報告』 第二卷 第十號. 東京人類學會, pp.59 · 60.

11) 저자미상, 1898, 「韓國古墳發見ノ高杯及石鏃」, 『東京人類學會報告』, 第三十卷 第百五拾號. 東京人類學會.

12) 若林勝芳, 1887, '朝鮮土器', 「雜記」, 『東京人類學會報告』, 第二卷 第十四號東京人類學會, pp.174~183.

13) 岡倉曲三郎, 1895, '朝鮮の墳墓', 「雜報」, 『東京人類學會雜誌』 第十卷 第百五號. 東京人類學會, pp.134 · 135.

1899년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근대화의 길에 들어선 대한제국은 1901년 경부선 철도의 건설시작,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과 그 뒤를 이은 한일의정서 체결, 1905년의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을사조약)에 따라서 1906년부터 일본의 통감부(통감 伊藤博文)에 의한 내정간섭을 받게 된다.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일본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자 메이지정권은 토쿄제국대학 건축과와 사학과를 졸업한 관학자들을 조선에 파견해서 여러 가지 학술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일본인들의 이민도 점차 증가하게 된다.[14]

한편 일본 및 한국 통감부의 초빙에 따라 한국으로 파견된 관학자들은 고고학, 인류학, 건축학, 민속학 등 제 분야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고고학적 조사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파견된 야키 쇼자부로(八木奘三郎)[15], 세키노 타다시(關野貞)[16], 도리이 류죠(鳥居龍藏)[17], 이마니시 류(今西龍)[18] 등이 계속하여 방한을 하면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위의 관학자와 달리 일반인이나 한국에 건너온 일본 거류민들 사이에서도 고적에 대한 관심을 지니게 되는데, 고바야시(小林與三郎)[19]와 같이 한국에서 근무를 하게 된 일반인들 중 고고학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조사도 이루어진다. 특히 부산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했던 고바야시는 주변지역에 소재한 고분출토 유물에 대한 소개[20]를 했지만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다.

1900년에 야키 쇼자부로(八木奘三郎)는 토쿄제국대학의 명령에 따라서 한국인에 대한 인류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인종뿐만 아니라 고고, 풍속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그의 연구는 신라토기의 분포와 일본 쓰에기(須惠器)와의 유사성, 한국에서 확인되는 신라토기의

14) 다카사키 소지 지음, 이규수 옮김, 2006,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군인에서 상인, 그리고 게이샤까지-, 역사비평사.

15) 八木奘三郎, 1900, 「韓國通信」(八木奘三郎氏より坪井正五郎氏への來信) 第一信(十月二十九日釜山發), 第二信(十一月一日釜山發), 第三信(十一月二日釜山發), 「雜報」, 『東京人類學會雜誌』 第十五卷 第百七十六號, 東京人類學會, pp.75~77.
高正龍, 1996, 「八木奘三郎の韓國調査」, 『考古學史研究』 第6號, 京都木曜クラブ, pp.34~44.

16) 關野貞 1904,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帝國大學工科學術報告』 第六號.
關野貞 著, 姜奉辰 譯, 1990, 『韓國의 建築과 藝術』, 産業圖書出版公社.

17) 鳥居龍藏 1906, 「滿洲調査復命書」, 『史學雜誌』 第十七編 第二·三·四號, 史學會.

18) 今西龍, 1908, 「新羅 都慶州附近の古墳」, 『歷史地理』 第11卷 第1號, 日本歷史地理研究會, pp.129~131.
今西龍, 1908, 「慶州に於ける新羅の墳墓及び其遺物ニ就いて」, 『東京人類學會雜誌』 第269號, 東京人類學會, pp.395~405.

19) 동경인류학회 회원으로 부산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로 부산지역에서 출토된 고분에 대한 수집연구를 했다. 이후 『東京人類學會雜誌』에 '小林氏の韓國通信' 이란 기사를 연재한다.
저자미상, 1900, '小林氏の韓國行', 「雜報」, 『東京人類學會雜誌』 第十五卷 第百六十六號, 東京人類學會, pp.174.

20) 저자미상, 1900, '小林氏の韓國通信', 「雜報」, 『東京人類學會雜誌』 第十五卷 第百六十七號, 東京人類學會, pp.210. 고바야시의 1월 21일자 보고는 부산시 西山(현 연산동?)에서 확인한 고분 출토 고배를 소개하고 있다.

분포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특히 고분은 낙동강의 좌우 및 그 이남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북쪽에는 많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라토기의 분포는 조령(鳥嶺)을 경계로 하여 그 이남에 한하며, 남쪽에 위치한 경상도는 일본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북쪽에 위치한 충청북도와는 조령산맥을 경계로 해서 고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를 경계로 사람도 풍속도 커다란 차이점을 보인다고 말하였다. 야키 쇼자부로의 조사는 다음 해인 1901년에도 계속 이어졌다.[21]

1902년 6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62일간 세키노 타다시(關野貞)는 동경제국대학의 명령에 따라서 한국의 문화유적들을 처음으로 조사하였다.[22] 그는 한국에서의 조사기간 중 건축과 조각, 공예품 그리고 유적과 유물을 조사했다. 이 때 조사는 당시 공과대학장인 다츠노 킹고(辰野金吾)가 "「한국 건축」의 역사적 연구성과 달성을 위해 폭넓게 관찰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한 것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그의 조사지역은 서울, 개성,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해인사까지 포함한 비교적 넓은 범위이며 한국에 소재한 여러 고분과 고건축물들을 보고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23] 그의 조사일정 중 경주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경주읍성·월성·분황사·오릉·불국사·백률사 등의 사찰 및 분묘유적과 읍성 종각에 걸려있던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했다. 「한국건축조사보고」에는 오릉(五陵)과 태종 무열왕릉 그리고 귀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고분 배치도를 스케치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관련 자료들에 대한 탁본과 경주의 신라고분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토기 9점에 대한 스케치도 함께 실려져 있다. 세키노 타다시가 동 보고서에서 신라고분의 배치와 묘역 그리고 출토유물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점은 신라고분 연구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고분 구조나 내부시설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오토메 마사히로(早乙女雅博)가 그의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00년 이전에 이루어진 한국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동경인류학잡지(東京人類學雜誌)』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반입된 개인 수집품(신라토기)에 대한 소개문과 신라토기를 스케치로 그린 그림이 함께 소개되는 정도였다.[24] 따라서 세키노 타다시의 조사는 연구자에 의한 최초의 정식 학술조사로서 신라토기가 출토된 지역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키노 타다시가

21) 高正龍, 1996, 「八木訳三郎の韓國調査」, 『考古學史研究』 第6號, 京都木曜クラブ, pp.34~44.

22) 京都 木曜クラブ, 2001, 『考古學史研究』 第9號 -特輯 關野貞と朝鮮古蹟調査-. pp.2~90.
藤井忠介·早乙女雅博·角田眞弓·西秋良宏 編, 2005, 『關野貞アジア踏査』 東京大學コレクションXX,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pp. 233~260.

23) 早乙女雅博, 2001, 「新羅の考古學調査「·○○年」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pp.55·56.

24) 早乙女雅博, 2001, 「新羅の考古學調査「·○○年」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p.55.

「한국건축조사보고(韓國建築調査報告)」에서 경주의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를 재확인하였고, 신라토기가 일본 쓰에끼와 유사한 점을 지적하면서 양자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25]

1904년 8월 22일 '한일 외국인 고문초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와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으로 1906년(광무 10) 2월 1일 한국에 통감부가 설치되자 대한제국정부는 국가에 대한 통치권을 통감부로 내주게 된다. 이 해 가을인 1906년 9월에는 토쿄제국대학 문과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경주, 서울, 개성을 답사했다. 이때 그는 경주에서는 17~8일간 체재하였는데 형산강이 형성한 평야와 그 주변의 산에 소재한 고분들을 보고 조사하였다.

이마니시 류는 경주의 고분을 분구의 크기와 높이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를 했다. 이를 살펴보면 대형은 높이5, 60~30尺, 중형은 30尺~15尺, 소형은 15尺 이내의 크기로 구분하였고, 대형과 중형 묘는 신라시대의 고분이며 소형 묘 중에서 큰 것은 대부분은 신라시대 고분이지만 작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조선시대의 묘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다. 그는 미추왕릉 서쪽에 위치한 비교적 커다란 고분 한 기(황남동 남총)를 조사했는데 목곽 상부의 적석층을 확인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쳤고 동천동 소금강산에 위치한 여러 기의 석실분에 대해서도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출토된 토기는 동경대학 문학부에 소장되었는데, 이마니시 류는 이 토기의 소장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동천동 소금강산에 소재한 여러 기의 고분들 중에서 파괴되지 않은 1기를 발견하고 내부조사를 했지만, 유물의 배치상태나 인골과 같은 유물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는 실시하지 못한 채 13점의 토기만을 수습했다고 적고 있다.[26] 이때 수습된 토기들은 『동경인류학잡지(東京人類學雜誌)』 제269호에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데, 1915년에 발간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5에도 동일한 유물이 '경주 북산[27] 고분'(北山古墳)에서 출토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북산고분은 경주지역에 소재한 신라고분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석실분으로 연구자가 매장주체부인 석실내부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가 비록 황남동고분군의 전 미추왕릉 서쪽에 위치한 대형분에서는 조사를 성공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동천동고분군이 위치한 경주 소금강산 지역에서 1기이상의 횡혈식석실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부장된 유물들을 수습했음은 분명하다.

이나미시 류(今西龍)의 이러한 조사활동에 대해서 후지다 료사쿠(藤田亮策)는 신라고분에

25) 關野貞 著, 姜奉辰 譯, 1990, 『韓國의 建築과 藝術』, 産業圖書出版公社. pp.98~105.
26) 今西龍, 1908, 「新羅旧都慶州附近の古墳」, 『歷史地理』 第11卷 第1號, 日本歷史地理研究會. p.130.
27) 이마니시 류는 그의 논문에서 北山의 위치를 경주시 북쪽에 위치한 小金剛山으로 지칭하고 있다.
今西龍, 1908, 「慶州に於ける新羅の墳墓及び其遺物ニ就いて」, 『東京人類學會雜誌』 第269號, 東京人類學會, p.403.

대한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만든 "조선사 연구의 선구"[28]라고 말했는데, 그의 말처럼 이마니시 류는 "신라고분 연구의 문을 연 사람"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1906년에 경주 소금강산에 소재한 '북산고분'을 발굴한 이 해를 경주지역에서 신라고분이 최초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첫 해라고 할 수 있다.

1909년 12월말에는 대한제국정부(통감부) 탁지부(度支部)의 의뢰에 따라 경주지역에 출장 온 야츠이 세이이치(谷井濟一)가 발굴조사를 한 서악동 석침총(石枕塚)은 횡혈식석실분으로 신라 석실분에 대한 연구사에 있어서 가장 앞머리를 장식하는 고분들 중 하나이다. 동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내용은 정식발굴조사 보고서로 간행되지 않았지만 『조선고적도보』에 게재된 사진과 해설문을 중심으로 고분구조와 성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10년에 야츠이는 『고고계(考古界)』에 「就韓國慶州西岳の一古墳に就いて」라는 발굴조사개보 형식의 글과 관련사진 2매와 실측도면 2매를 보고하고 있다.[29] 이 글에서 야츠이 세이이치는 1909년 서악동 석침총 발굴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느낀 신라고분에 대한 연구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논문에 게재된 '한국경주군서악동고분지형견취도(韓國慶州郡西岳洞古墳地形見取圖)'는 그동안 '장산고분군' 안에 속한 한 고분으로만 생각되어 오던 석침총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30] 그는 서악동 석침총에 대한 발굴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주목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고분의 주변에 위치한 조선묘와 비교를 하면서 고분의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무연고 묘인 「고려총(高麗塚)」으로 불리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고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1910년)보다 오래되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금과 고려시대의 분묘를 비교하면서, (1) 그 외형에 있어서 왕자(王者)의 능묘(陵墓)와 비교할 때 훨씬 큰 것이 없다. (2) 일반민이 볼 때 귀족의 묘는 왕자(王者)의 능묘(陵墓)이며 특히 기다란 연도를 가진 것이 있었다. (3) 발견되어진 토기는 지금보다는 전인 고려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것이다. (4) 관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시체를 석실 내부의 시상 위에 놓고 거대한 석침(石枕)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오래된 고려 때에도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이 무덤은 신라시대이전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경주읍내의 황남동 고분군과 경주군 서면(현 건천읍) 금척리 고분군 등에서 확인된 적석총(Cairn)과 구분되는 연도를

28) 藤田亮策, 1951,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 第1輯, 朝鮮學會.

29) 谷井濟一, 1910, 「韓國慶州西岳の一古墳に就いて」, 『考古界』 第八編 第二十號, 考古學會. pp.495~501.

30) 『朝鮮古蹟圖譜』 三의 圖版 1196에 표시된 西岳里石枕塚의 위치를 야츠이 세이이치의 논문에 게재된 '韓國慶州郡西岳洞古墳地形見取圖'에 표시된 내용과 비교해 보면 「乙」이 아니라 바로 뒤쪽에 있는 「丙」에 해당되는 지점의 고분으로 표기되어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6년에 『朝鮮古蹟圖譜』 3을 출판하기 위해서 새로 도면을 제도하면서 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산고분군이 위치한 능선의 등고선 형태가 서로 틀린 점에서도 알 수 있다.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三, 圖版1197 참조.

가진 석실의 존재가 확인된 점(회의 사용, 시상의 규모, 석실의 방향 등)을 새로운 성과로 들고 있다. 이외에도 야츠이 세이이치는 금척리 고분군을 지나가는 대구-연일간의 도로공사 중 파괴된 여섯 기의 고분의 내부를 관찰하고 적석총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금척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내용에 기초하여서 경주의 고분을 평원시대(平原時代)라 부르고 전기와 후기의 두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는 평원시대 전기는 고분 내부에 적석이 있으며 평원시대 후기에는 고분 내부에 석실(石室)을 쌓았다고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야츠이의 시기구분안은 신라고분에 대한 이후 발굴조사와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고, 경주지역에 적석목곽분과 횡혈식석실분이라는 두 가지 묘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표 2> 참조)

표 2. 1900~1909년대 발굴조사된 신라고분

번호	조사연도	유 적 명	조사내용 및 참고문헌
1	1906	小金剛山 北山古墳	추정 횡혈식석실분, 인화문토기 등 13점 수습. 今西龍, 1908, 「新羅旧都慶州附近の古墳」, 『歷史地理』 第11卷 第1號, 日本歷史地理研究會. 今西龍, 1908, 「慶州に於ける新羅の墳墓及び其遺物ニ就いて」, 『東京人類學會雜誌』 第269號, 東京人類學會. 朝鮮總督府, 1917, 『朝鮮古蹟圖譜』 五.
2	1906 1909	皇南里 南塚	적석목곽분, 부분적인 시굴조사. 적석층 확인. 今西龍, 1908, 「新羅旧都慶州附近の古墳」, 『歷史地理』 第11卷 第1號, 日本歷史地理研究會. 今西龍, 1908, 「慶州に於ける新羅の墳墓及び其遺物ニ就いて」, 『東京人類學會雜誌』 第269號, 東京人類學會.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三.
5	1909	西岳里 石枕塚	횡혈식석실분, 석침 및 토기출토. 谷井濟一, 1910, 「韓國慶州西岳の一古墳に就いて」, 『考古界』 第8編 第12號, 考古學會. 谷井濟一, 1910, 「慶州の陵墓」, 『朝鮮芸術之研究』.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三.
4	1909	金尺里古墳群	대구-연일간 도로공사로 파괴된 고분 6기에 대한 관찰. 谷井濟一, 1910, 「韓國慶州西岳の一古墳に就いて」, 『考古界』 第8編 第12號, 考古學會. 谷井濟一, 1910, 「慶州の陵墓」, 『朝鮮芸術之研究』. 早乙女雅博, 2001, 「新羅の考古學調査「一〇〇年」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결국 세키노 타다시와 이마니시 류를 위시한 일본 관학자들에 의해서 처음 조사된 신라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는 신라고분 연구에 대한 단초를 열었다는 의미를 지니며, 이때 인식된 적석총과 석실분의 문제는 이후 연구에서도 중요한 관심대상이 된다.

3. 조선총독부에 의한 신라고분조사(1910~1919)

1910년 8월 29일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자 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1909년부터 통감부 탁지부의 의뢰로 고적조사를 시작한 세키노 타다시는 1915년까지 한국 내에 소재한 여러 고적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야츠이 세이이치(谷井濟一 : 考古學), 쿠리야마 순이치(栗山俊一 : 建築學)가 함께 조사를 했다.

1910년 10월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고 전국에 걸쳐서 건축물 · 고분 · 성터 · 절터 등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다. 세키노 타다시는 경주지역에 소재한 여러 유적들의 가치를 갑(甲-최우수품), 을(乙-우수품), 병(丙-보통품), 정(丁-하품)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 중에서 갑 · 을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병 · 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정했다.[31] 경주지역에 소재한 중요유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32]

표 3. 세키노 타다시가 분류한 경주지역의 고적 등급

所在地	古 蹟	時 代	分類年	..野貞分類	指定年	保存令
慶州	月城遺址	三國	1909	甲	1936	寶物32號
慶州	彌勒石像	三國	1909	甲		
慶州	芬皇寺塔	新羅	1909	甲	1934	寶物100號
慶州	瞻星臺	新羅	1909	甲	1934	寶物105號
慶州	佛國寺多寶塔	新羅	1909	甲	1934	寶物84號
慶州	釋迦塔	新羅	1909	甲	1934	寶物86號
慶州	石窟庵	新羅	1909	甲	1934	寶物89號
慶州	武烈王陵碑	新羅	1909	甲	1934	寶物92號
慶州	鐘閣奉德寺鍾	新羅	1909	甲	1934	寶物99號
慶州	鮑石亭	新羅	1909	甲	1934	古蹟1號
慶州	五陵	三國	1909	乙	1936	古蹟
慶州	諸陵墓	三國新羅	1909	乙	1936	古蹟
慶州	四天王石燈	新羅	1909	乙 · 丙		
慶州	南山山城	新羅	1911	甲	1936	古蹟38號
慶州	興德王陵	統一新羅	1911	甲	1936	古蹟46號
慶州	憲德王陵	統一新羅	1911	甲	1936	古蹟45號
慶州	味鄒王陵	新羅	1911	乙		
慶州	阿達羅王陵	新羅	1911	乙		
慶州	眞平王陵	新羅	1911	乙		
慶州	神文王陵	統一新羅	1911	乙		

31) 關野貞 著, 姜奉辰 譯, 1990, 『韓國의 建築과 藝術』, 産業圖書出版公社.

32) 〈표 3〉은 사오토메 마시히로의 논문에 게재된 내용중 경주관련 자료만 뽑아서 정리한 것이다.
早乙女雅博, 2001, 「新羅の考古學調査「 ·○○年」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pp.58~59.

〈표 3〉을 살펴보면 경주지역에 소재한 유적은 모두 20건이며 이중 신라고분과 관련된 유적은 오릉을 비롯하여 역대 왕릉과 태종 무열왕릉 귀부 등 모두 9건으로 신라고분 관련 자료가 45%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표 3〉에서 주목되는 점은 고적으로 지정된 이들 유적들 중 대부분은 세키노 타다시가 1902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조사했을 때 확인했던 유적인 점이다. 이를 살펴보면 왕궁이나 사찰과 관련된 문화재 혹은 피장자가 분명하고 석물이 있는 왕릉은 모두 「甲」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왕릉이라고 해도 석물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乙」로 지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33]

다음으로 1910~1919년까지 이루어진 경주지역의 신라고분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라왕릉 및 전 신라왕릉들에 대한 현황조사가 1911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해에 황남동 검총(황남동 100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1915년에는 보문동 부부총, 금환총, 완총, 동천동 와총이 조사되며, 1918년에는 적석목곽분인 보문동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4〉 참조) 이들 고분에 대한 조사계기는 1913년에 야츠이 세이이치가 경주 명활산성, 남산성, 선도산성 그리고 관문성 등의 신라성곽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그는 명활산성과 남산성 주변에 신라토기편과 기와편이 많이 널려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경주읍성의 성문이 무너졌을때 성벽을 쌓기 위한 석재로 십이지신상이 새겨진 고분의 면석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34]

1911년 세키노 타다시(關野貞)를 주축으로 하는 토쿄대학출신의 관학파 연구자인 야츠이 세이이치(谷井濟一), 고토 게이지(後藤慶二) 등은 황남동 고분군 100호분(검총)을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발굴조사[35]하고 적석목곽분의 특징인 적석부분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거대한 분구를 지닌 검총에 대한 발굴조사는 규모에 비해서 소략한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 조사자들에게 적석목곽분에 대한 발굴조사의 어려움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결국 당시 연구자의 관심대상을 평지에 위치한 대형 고분들에 대한 조사보다는 구릉에 위치한 석실분에 대한 발굴조사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1909년에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그 일부를 조사했던 황남동 남총(南塚)에 대한 재발굴도 실시하였지만 적석층 때문에 고분의 중심부까지 조사를 마칠 수 없었다. 당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은 황남동 남총의 구조에 대해서 봉토에는 돌을 섞지 않았고 그 내부에는 천석을 쌓았기 때문에 검총(劍塚)과 같은 구조의 적석목곽분으로 추정을 했다.

33) 關野貞, 1910, 「朝鮮遺蹟 ·覽(地方別)」, 『朝鮮學術之硏究』.
關野貞 · 谷井濟 · · 票山俊 -, 1911, 「朝鮮遺蹟調査略報告」, 『朝鮮芸術之硏究續編』.
34) 谷井第 -, 1913, '○慶州通信', 「彙報」, 『考古學雜誌』 第三卷 第十 -號, 考古學會, p.62.
35) 정규홍, 2006, 『우리 문화재 수난사』, 학연문화사, p.341, 각주-11) 재인용.

표 4. 1910~1919년대 발굴조사된 신라고분

번호	조사연도	유 적 명	조사내용 및 참고문헌
1	1911 (6.21~7.1)	劍塚 (황남동 100호분)	적석목곽분 1기 발굴조사, 철검 1, 지석 1, 토기 호 등 출토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三.
2	1915	普門里 夫婦塚	적석목곽분 1기 및 횡구식석상분 1기에 대한 발굴조사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三. 朴普鉉, 2000,「耳飾으로 본 普門里夫婦塚의 性格」,『科技考古研究』第6號, 아주대학교 박물관.
3	1915	普門里 金環塚	추정 횡구식석곽묘 1기, 세환이식 1점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三. 朴普鉉, 2000,「耳飾으로 본 普門里夫婦塚의 性格」,『科技考古研究』第6號, 아주대학교 박물관.
4	1915	普門里 垸塚	추정 횡구식석곽묘, 합 2점 등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三. 朴普鉉, 2000,「耳飾으로 본 普門里夫婦塚의 性格」,『科技考古研究』第6號, 아주대학교 박물관.
5	1915 1918	普門里 古墳	적석목곽분 1기, 청동합 등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紀念會, 1976,『黑板勝美先生遺文』 原田淑人, 1922,「慶北道慶州郡內東面普門里古墳發掘調查及慶山郡淸道郡金泉郡尙州郡慶尙南道梁山郡東萊郡諸遺蹟調查報告書」,『大正七年度 古蹟調查報告』, 朝鮮總督府. 朴普鉉, 2000,「耳飾으로 본 普門里夫婦塚의 性格」,『科技考古研究』第6號, 아주대학교 박물관.
6	1915	東川里 瓦塚	횡혈식석실분 1기, 토기 뚜껑, 대부직구호, 기와, 철도자 등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三.

1915년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경주시 외곽에 위치한 보문동고분군에서 3기, 동천동고분군에서 1기의 고분이 발굴조사 되었다. 이때 조사된 고분은 보문리 부부총(夫婦塚), 금환총(金環塚), 완총(垸塚)[36]과 동천동 와총(瓦塚)으로, 지난번에 조사된 검총에 비해서 화려한 유물이 출토된 보문동 부부총은 적석목곽분과 횡구식석실분이 한 봉분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라묘제 변화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리고 보문동고분군 안에 위치한 금환총과 완총은 구릉지를 밭으로 경작하는 경작과정에서 분구가 삭평된 채 유구가 노출된 고분에 대한 수습발굴조사로 이루어졌다. 금환총과 완총의 묘제는 수혈식석곽묘 혹은 횡구식석관묘로 추정되며 모두 간략한 유구 도면과 유구와 출토유물상태에 대한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는데, 1909년에 발굴조사된 서악동 석침총에 비해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1906년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발굴조사를 한 곳과 같은 지역에서 확인된 동천동 와총

36) 야쓰이 세이이치는 「新羅の墳墓」에서 보문리 완총을 전총(甸塚)으로 기술하고 있다.

(瓦塚)은 횡혈식석실분으로 현재 그 위치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소금강산 정상부 주변 구릉에 위치했던 고분으로 추정된다. 석실의 형태는 장방형이고 내부에는 2개의 시상대가 확인되며 시상으로 사용된 토수기와들과 토기 뚜껑 1점, 대부직구호 1점, 철도자 2점이 출토되었다. 보문동 고분은 보문동 부부총(夫墓)과 함께 이때 발굴조사된 적석목곽분으로 많은 양의 돌을 사용한 점은 확인되었지만, 당시의 발굴조사에서는 목곽의 범위확인을 통한 적석목곽분의 구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석실분과 다른 묘제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정도였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1915년 조선통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를 발간하게 된다.[37] 이 책에는 1902~1915년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과 유물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신라고분과 관련된 부분은 제3책〔馬韓時代, 百濟時代, 任那時代, 沃沮時代, 濊時代, 古新羅時代, 三國時代佛像〕(1916년 3월 발행)과 제5책〔新羅統一時代〕(1917년 3월 발행)이다. (<표 5> 참조)

표 5.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경주지역 고분조사 내용 및 출토유물 관련자료

번호	조사연도	유 적 명	수록된 사진 및 도면
1	1902	五陵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No.1092 사진 No.1093 오릉 배치약도
2	1906	小金剛山 北山古墳	朝鮮總督府, 1917, 『朝鮮古蹟圖譜』 5. No.1814~1822. 경주 북산고분 부장도기 사진 동경대학 문과대학 문학부 소장 (今西龍 기증품)
3	1909	皇南里 西南部 古墳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No.1119 경주읍남 고분군 서남부 고분 배치도 No.1120 황남리 서남 瓢塚 서면
4	1909 1915	皇南里 南塚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No.1121 황남리 남총 남면(발굴조사 중 사진) No.1122 같은 무덤 서면
5	1909	西岳里 石枕塚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No.1197 서악리부근 고분 지형약도 No.1198 서악리 석침총 부근 분묘군 사진 No.1199 같은 무덤 서면 사진(연도부분 발굴 사진) No.1200~1202 서악리 석침총 석곽 실측도 No.1203 같은 무덤 현실 사진 No.1204~1208 서악리 석침총 출토유물 (동경 공과대학 소장)
6	1911	傳脫解王陵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No.1094 사진
7	1911	傳味鄒王陵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No.1095 사진

번호	조사연도	유 적 명	수록된 사진 및 도면
8	1911	眞平王陵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No.1096 사진
9	1911	善德王陵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No.1097 사진
10	1911	慶州邑南古墳群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No.1098 사진(劍塚의 위치가 표시됨)
11	1911 6.21~7.1	劍塚 (황남동 100호분)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No.1099 정면사진 No.1100 검총 뒷부분과 전 미추왕릉 원경사진 No.1111 황남리 검총 종단 서측면도 No.1112 같은 무덤 종단 동측면도 No.1113 같은 무덤 횡단 북측면도 No.1114 황남리 검총굴착 서측면 사진 No.1115 같은 무덤 굴착 서측면 및 북측면 사진 No1116 같은 무덤 굴착 북측면 및 동측면 사진 No.1107~1118 출토유물 사진
12	1913	金尺里古墳群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No.1123 금척리고분군 사진 No.1124 금척리 발견 도기파편 (동경공과대학 소장)
13	1915	普門里 夫婦塚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No.1125 보문리 부부총 약평면도 No.1126 같은 무덤 夫묘광 평면도 No.1127 동 묘광 종단면 No.1128 보문리부부총 婦墓 현실 평면도 No.1129 같은 묘 현실 종단도 No.1130 같은 묘 현실 횡단도 No.1131 보문리 부부총(수복후) 사진 No.1132 같은 무덤 夫墓 부장도기 출토상황 사진 No.1133 보문리 부부총 부묘 단면사진 No.1134 같은 무덤 婦墓 현실사진 No.1135~1159 보문리 부부총 夫墓 출토유물 사진 No.1160~1169 보문리 부부총 婦墓 출토유물 사진
14	1915	普門里 金環塚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No.1170 보문리 금환총 사진 No.1171 같은 무덤 단면약도 No.1172 같은 무덤 부장 금환 사진
15	1915	普門里 塊塚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No.1173 보문리 완총 사진 No.1174~1176 같은 무덤 실측도 No.1177 보문리 완총 석곽 횡단면 및 부장도기 출토상태 사진 No.1178 같은 무덤 석곽 횡단면 사진 No.1179~1185 보문리 완총 출토유물 사진

번호	조사연도	유 적 명	수록된 사진 및 도면
16	1915	東川里 瓦塚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3. No.1186 동천리 와총(수복후) 사진 No.1187~1189 같은 무덤 석곽 실측도 No.1190~1196 동천리 와총 출토유물 사진
17		西岳里 古墳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3. No.1209 서악리고분 현실내 발견 내석곽 및 석침 사진 (春日淸九郎氏 소장) No.1210 같은 내석곽 및 석족좌 사진 No.1211 같은 내석곽·석침 및 족좌 실측도 No.1212·1213 서악리고분 석곽내 발견 석비 전면 및 배면 조각 사진
18		普門里 古墳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3. No.1214~1217 보문리고분 현실 출토유물 사진
19		慶州郡 古墳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3. No.1218 경주군 발견 석족좌 사진 No.1219 경주군 발견 와침 및 전 사진 (모두 諸鹿央雄氏 소장)
20		慶州郡 古墳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3. No.1220·1221 경주군 고분 발견 와 및 전 사진 No.1222 경주군 고분 발견 석침 사진 No.1223 경주군 고분 발견 동완 사진 No.1224 경주군 발견 무기 및 마구 사진 (모두 舊韓國 內部土木局 大邱出張所 慶州工營所 發見)
21		慶州郡 外東面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3. No.1225 외동면 발견 도끼 사진 No.1226 외동면 발견 창 사진 (모두 慶州古蹟保存會 소장)
22		出土地不明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3. No.1227 창 사진 (慶州古蹟保存會 소장)
23		孝門里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3. No.1228·1229 효문리 발견 창 사진 (慶州古蹟保存會 소장)
24		傳 慶州郡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3. No.1230·1231 전 경주군 발견 창·대도 및 도 사진 (內田良平氏 소장)
25		傳 慶州郡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3. No.1232 경주군 발견 옥류 사진 (諸鹿央雄氏 소장)
26		傳 慶州郡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3. No.1233 경주군 발견 순금이식 사진 (李王家博物館 소장)
27		冷川里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3. No.1234 냉천리 발견 병두 사진 (諸鹿央雄氏 소장)
28		普門里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3. No.1235·1236 보문리 발견 교구 사진 (諸鹿央雄氏 소장))
29		傳 慶州郡	朝鮮總督府, 1916,『朝鮮古蹟圖譜』3. No.1237 전 경주군 발견 도제 鞍馬·인물 및 거문고 사진 (李王家博物館 소장)

하지만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는 경주지역에 소재한 여러 고분들과 당시에 발굴조사된 고분들에 대한 조사관련 사진들과 도면 그리고 짧은 설명문이 별책으로 포함되었지만, 이때 발굴된 고분들은 대부분 정식 보고서로 출판되지 않았다. 이들 고분들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던 원인은 당시 조사는 발굴을 통해서 유물의 수집과 확보에만 주력을 했고 연구결과물인 발굴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던데 있다고 추정된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 조사된 유적소개나 출토유물에 대한 보고와 연구성과는 각종 학술잡지에 논문형식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917년에는 하마다 료사쿠(濱田耕作)의 주도로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고고학연구실에서 처음으로 유구와 출토유물에 대한 도면과 사진이 수록된 현재 모습과 같은 발굴조사보고서 형식이 발간되었다.[38] 따라서 이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신라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은 채 조사된 유적들에 대한 설명과 지도, 배치도 등만을 수록한 도록이 먼저 만들어진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1917년 이후부터는 조선총독부에서 『고적조사보고(古蹟調査報告)』와 『고적조사특별보고(古蹟調査特別報告)』가 발행되면서 발굴조사 후 보고서가 발간되게 된다.[39] 비록 초기에는 고적조사위원들의 출장복명서를 활자화해서 보고서로 발간한 것이지만 일본 국내와 같은 시기에 형식과 체재가 갖추어진 보고서가 발행된 점은 당시 고적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 무렵을 전후하여 경주 서악동, 충효동, 동천동, 보문동 고분군이 도굴되고 석실분의 입구가 노출되어 있다는 기록이 『신라구도 경주지(新羅旧都 慶州誌)』에 등장[40]하는데 신라유적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유물들을 노린 전문적인 도굴의 성행을 알려준다.[41] 하지만

---

37) 『朝鮮古蹟圖譜』는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조선고적조사사업에서 조사된 여러 유적과 유물들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시기별로 구분되어서 수록된 초호화판 도록으로 1915년부터 1935년까지 연차적으로 발행되었다. 모두 1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록된 사진은 6,633장이다. 이 책자의 발간목적은 조선문화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물을 국·내외 여러 기관에 배포를 함으로써 당시 일본제국주의의 총독통치를 정상적인 통치행위로 미화하면서 善政施策으로 선전하는 역할이었다.

38) 京都帝國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1917, 『肥後に於ける裝飾ある古墳及横穴』 京都帝國大學考古學研究報告 第一册.

39) 조선총독부에서 고적조사와 관련된 최초의 보고서는 세키노 타다시·야츠이 세이이치·쿠리야마 순이치가 약보고 형식으로 1914년 9월에 제출한 것이다. 수록된 내용은 조선유적 일람(地方別), 조선중요유적 일람(時代別), 세키노 타다시 – 조선문화의 유적(其二), 야츠이 세이이치 – 황해도 봉산군에 있어서 한 종족의 유적으로 당시 조사한 유적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보고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朝鮮總督府 著, 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1981, 『古蹟調査報告 大正三年度』 朝鮮考古資料集成 13.

40) 奥田悌, 1920, 『新羅旧都 慶州誌』, 玉村書店.

41) 1915년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과 1916년 2월에 경주에 거주하던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등이 유적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주 사천왕사지 서편목탑을 도굴하고 녹유사천왕상을 채집한 사례를 들 수 있다.
稻田春水, 1915, 「朝鮮共進會美術館の一瞥」, 『考古學雜誌』 第六卷 第三號, 考古學會, pp.66·67.
谷井第一, 1916, 「○朝鮮 慶州發見釉塼(口繪解說)」, 「彙報」, 『考古學雜誌』 第六卷 第八號, 考古學會, pp.53·54.

이러한 도굴의 성행과 함께 한편으로는 고분의 분구에 사용된 흙을 채토하여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행위도 성행하게 된다.[42]

1916년 7월10일 조선총독부는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古蹟 및 遺物保存規則)」 8조(조선총독부령 제52호)를 시행하였고, 「고적조사위원회규정(古蹟調査委員會規程)」 11조를 정해서 고적조사위원회와 박물관협의회를 설치했다. 고적조사위원회 발족 당시에 임명된 고적조사위원은 조선총독부의 관계관 이외에도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구로이타 가쯔미(黑板勝美), 이마니시 류(今西龍), 도리이 류죠(鳥居龍藏) 등과 같이 한국 고적에 대한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일본인 학자가 위원으로 우선적으로 위촉되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오다 쇼코(小田省吾),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 工藤壯平, 유맹(劉猛:중추원 찬의, 일진회 이론가), 유정수(柳正秀:중추원 찬의), 구희수(具羲秀:교육)가 포함되었으며 간사는 오다 미기지로우(小田幹治郎)였다. 이후 1931년에는 고적조사위원으로 야츠이 세이이치(谷井濟一), 우마즈카 제이치로(馬場是一郎)가 참가했으며 1932년에는 하마다 료샤쿠(浜田耕作), 하라다 요시히토(原田淑人),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우메하라 쓰에지(梅原末治)가 새롭게 위원이 되는데, 이들 일본인 연구자 대부분은 한국의 유적과 문화를 연구한 당시 관학파 학자들을 대표한 인물들이었지만, 위원회에 참여한 한국인들은 대부분 일진회나 중추원 찬의로 활동한 친일파들이었다.

한편 이때 발효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古蹟 및 遺物保存規則)」 8조와 「고적조사위원회규정(古蹟調査委員會規程)」11조는 함께 나온 「고적 및 유물에 관한 건(古蹟 및 遺物에 관한 件)」(훈령)과 함께 고적조사에 있어서 조선총독부의 허가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임의적으로 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지웠지만, 뒤에 언급할 금관총의 사례처럼 우연한 발견에 따른 조사는 사실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16년부터 모든 발굴조사는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경주와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여러 고분군들과 경주 사천왕사지 출토 녹유사천왕상 등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진 도굴행위와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단 발굴조사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1910~1919년까지 경주에서 발굴조사된 신라고분은 주로 구릉지역에 소재한 석실분이 주를 이루며,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고 한국 전역에 대한 고적조사가 시대별로 이루어지면서

42) 이와 같은 사례로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 보문동고분군의 구릉지를 경작지로 만들면서 고분이 노출된 사례, 1926년 고이즈미 아키오가 서봉총을 발굴하기 위해서 고분 분구 흙을 철도가설용으로 반출한 사례가 알려져 있다.
小泉顯夫, 1927, 「慶州瑞鳳塚の發掘」, 『史學雜誌』 第38編 第1號, 史學會.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蹟の遍歷』, 六興出版.
또한 1945년 이후 사례로는 1968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굴조사한 '동천동 석실분'을 들 수 있다. 본 고분은 농민이 분구 흙을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채토하는 과정에서 고분이 발견되어 고분에 대한 긴급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였다.
저자미상, 1968. 4, 「慶州에서 遺蹟 露出」, 『考古美術』 第九卷 第四號 通卷九十三號, 韓國美術史學會.

각 지역에 소재한 중요 유적들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당시에 이루어진 조사는 한정된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관련기록의 작성이나 이후 보고서발간과 같이 학술적 마무리를 짓는 일련의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때 경주지역의 신라고분에 대한 조사한 내용을 유적별로 구분하여서 살펴보면 평지와 구릉지대에 소재한 고분들에 대한 고분구조와 성격을 확인하려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마니시 류나 야츠이 세이이치와 같이 신라고분을 분구의 규모와 입지적 특징으로 구분한 이들의 연구로 볼 때, 자신의 조사를 통해서 입론된 이론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발굴조사라고 그 의미를 규정지울 수 있다.

4. 금관총의 발견에 따른 신라고분 발굴조사(1920~1929)

1921년 9월 24일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박문환 씨의 집을 증축하기 위한 공사도중 다량의 유물이 노출되었고, 이 유물은 경주경찰서 순사인 미야게 고우죠우(三宅興三)가 발견하고 그 내용을 조선총독부와 경주고적보존회 회원인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에 알렸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에서 직원이 내려오지 않자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주경찰서장의 입회 아래에서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와타리 후미야(渡理文哉),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 등 경주고적보존회 소속 회원들이 유물수습을 하였다. 작업이 완료된 후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조선총독부에서 파견된 오가와 게이기치(小川敬吉)는 금관총 출토품에 대한 현장조사와 유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마치고 올라갔고, 10월 12일에는 하마다 료샤쿠(浜田耕作)와 우메하라 쓰에지(梅原末治)가 도착해서 유물 발견 당시의 상황을 녹취한 후 그 내용에 근거해서 묘광 내 목곽 안에 금관을 비롯한 여러 중요유물의 출토상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잔존한 분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분구 표토층 밑에 점토층과 적석층이 있고 그 아래에 목곽이 존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43] 결국 적석목곽분의 내부구조와 부장유물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준 금관총에 대한 발굴조사는 적석목곽분의 특성상 발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 지역 고분군의 학술적 가치가 점차 인정되어지고 끊임없는 학자의 시선이 집중된 사실을 알려준다."는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의 말[44]처럼 경주에서 신라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

43) 浜田耕作・梅原末治, 1924, 「慶州金冠塚と其遺寶」, 『古蹟調査特別報告』 第3册, 本文 上册, 朝鮮總督府.
浜田青陵, 1932, 『慶州の金冠塚』, 慶州古蹟保存會.
小泉顯夫, 1986, '金冠塚遺寶の發見と遺物の整理', 「第 一章 新羅の古墳を堀る」, 『朝鮮古代遺蹟の遍歷』, 六興出版, pp.14~26.

44) 小泉顯夫, 1927, 「慶州瑞鳳塚の發掘」, 『史學雜誌』 第38編 第1號, 史學會.

금관총에서 노출된 유물들을 수습하기 위한 조사를 경주지역에 거주하던 경주고적보존회 회원들이 실시한 점에 대해서 '신라왕릉의 발견'과 당시의 황사에 의한 기상악화로 경주 주민들의 민심이 심하게 동요되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지만,[45] 이미 1916년 2월에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가 사천왕사지 서탑지 북서편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녹유사천왕상 등을 수습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 부분을 관련 연구자가 내려오지 않아서 유물수습을 했다는 오사카 긴타로의 이야기만을 믿기에는 조금 주저된다. 다만 조선총독부와 지방과의 연락에 혼란이 있었다는 점과 출토품에 대한 관리가 당시 경주군청와 경찰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은 나름대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점이라고 볼 수 있다.

1924년 5월10일~6월3일에는 금령총(金鈴塚)이, 5월10일~6월13일까지는 식리총(飾履塚)이 발굴조사 되었다.[46] 이 발굴조사는 경주고적보존회원인 모로가 히데오가 경주를 방문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총독에게 청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금관총에 대한 발굴조사후 이루어진 이 조사를 통해서 적석목곽분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조사방법의 터득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한편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노동동 4호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47] 금관총과 마찬가지로 주택 건설 중 발견된 고분에 대한 수습조사로 이루어졌다.

1926년 5월 대구-경주-울산-부산을 잇는 동해남부선로의 협궤철도의 폭을 넓게 보수하면서 용지매립에 필요한 흙을 채토하는 장소를 황남동고분군의 주변으로 정하고 작업하다가 많은 양의 토기와 토우가 발견되었다. 확인된 고분의 구조는 수혈식석곽묘(竪穴式石槨墓)로 지금까지 알려진 묘제와는 다른 것이었다. 특히 다수의 고분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는 경주역 건설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할 목적으로 노서동 129호분(瑞鳳塚)의 분구를 제거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조사방법은 분구 상부의 표토부터 점차 아래쪽으로 순차적으로 파내려가는 방법을 취했는데, 그 결과 적석 아래에서 목곽부분을 쉽게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분구의 흙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바깥 호석열이 확인되었고 남분(瑞鳳塚)과 북분(데이비드塚)이 서로 연결된 표형분으로 밝혀졌다.[48] 노서동 129호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초대형 적석목곽분의 구조가 분명하게 확인되었고, 외호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표형분의 중복관계가 처음으로

45) 大坂六村, 1931, 「十. 金冠塚」, 『趣味の慶州』, 慶州古蹟保存會, pp.52~70.

46) 梅原末治, 1932,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本文」, 『大正十年度古蹟調査略報告 第一册』, 朝鮮總督府.

47) 國立中央博物館, 2000, 『慶州 路東里四號墳』.

48) 1929년에 慶州古蹟保存會가 영국사람 데이비드(David)의 기부를 받아서 발굴비용을 부담했다. 데이비드塚의 보고서는 노서동 129호분(서봉총)과 함께 발간되지는 않았다. 중요한 출토유물은 新羅土器 數十点, 銀製馬具 破片, 刀子, 蜻蛉玉(잠자리구슬), 鳳凰을 밀타화로 그린 漆器破片, 純金製耳飾, 紫玻璃玉, 翡翠曲玉, 純金壁釧, 純金指輪 여덟 개 등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田中萬宗, 1930, 『朝鮮古蹟行脚』, 泰東書院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蹟の遍歷』, 六興出版

밝혀짐으로써 신라고분의 상대편년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확인되었다. 1924년과 29년에 이루어진 발굴조사결과 적석목곽분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분구 전체에 대한 제거작업과 호석의 노출을 통한 시기구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점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조사방법으로 계속 이용된다.

1929년에는 노서동고분군의 범위 내에서 파괴된 횡혈식석실분 1기(노서동 131호분)가 발굴조사된다. 적석목곽분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평지에서 최초로 확인된 횡혈식석실분으로 우메하라 쓰에지가 조사하던 것을 고이즈미 아키오가 마무리했다.[49]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했던 마총(노서동 133호분)과 구분되는 고분으로 노서동 137호분(쌍상총)과 함께 평지 석실분의 존재를 알려준다. 특히 적석목곽분에서 횡혈식석실분으로 묘제가 시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표 6> 참조)

표 6. 1920~1929년대 발굴조사된 신라고분

번호	조사연도	유 적 명	참 고 문 헌
1	1921	金冠塚 (노서동128호분)	浜田耕作·梅原末治, 1924, 「慶州金冠塚と其遺寶」, 『古蹟調査特別報告』 第3冊, 本文上冊, 朝鮮總督府. 浜田青陵, 1932, 『慶州の金冠塚』, 慶州古蹟保存會.
2	1924 5.3~10	金鈴塚 (노서동127호분)	梅原末治, 1932,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本文」, 『大正十年度 古蹟調査略報告 第一冊』, 朝鮮總督府.
3	1924 5.10~6.1	飾履塚 (노서동126호분)	梅原末治, 1932,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本文」, 『大正十年度 古蹟調査略報告 第一冊』, 朝鮮總督府.
4	1924 8.12~26	玉圃塚 (노서동4호분)	國立中央博物館, 2000, 『慶州 路東里四號墳』
5	1926. 5월	皇南洞古墳群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蹟の遍歷』, 六興出版.
6	1926 7.24~11월	瑞鳳塚 (노서동129호분)	小泉顯夫 1927, 「慶州瑞鳳塚の發掘」 『史學雜誌』 第38編 第1號 史學會.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蹟の遍歷』, 六興出版.
7	1929	데이비드塚 (노서동129호분)	田中萬宗, 1930, 『朝鮮古蹟行脚』, 泰東書院.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蹟の遍歷』, 六興出版.
8	1929	路西里石室墳 (노서동131호분)	有光敎一, 1955, 「慶州邑南古墳群について」, 『朝鮮學報』 8輯, 朝鮮學會. 伊藤秋男, 1976, 「韓國慶尙北道善山古墳郡(1)」, 『人類學研究所紀要』 第5號, 南山大學人類學研究所.

49) 有光敎 一, 1955, 「慶州邑南古墳群について」, 『朝鮮學報』 8輯, 朝鮮學會.

이 시기에 이루어진 노동동·노서동 고분군에 속해있는 적석목곽분들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적석목곽분에서 확인된 적석의 계통론, 금제유물과 금동식리에 나타난 문양, 칠기유물과 곡옥 그리고 유리제품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경주지역의 고분호수 부여는 노모리 겐(野守健)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고분 분구의 규모와 형태를 표시한 후 개개 고분에 대한 호수를 표시한 것이라고 한다.[50]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발굴조사된 여러 신라고분들은 이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자료로 이용되며, 특히 금관총을 비롯한 여러 유적들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는 초호화판 양장본으로 제작되어 국내외 각처로 보내진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이루어진 『조선고적도보』의 발행과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의 문화시정정책을 선전고양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5. 조선고적연구회와 신라고분(1930~1945)

1930년부터 45년까지 신라고분에 대한 연구는 이전과 달리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하게 된다. 먼저 시가지의 확대와 각종 건설공사에 따라서 황남동, 사정동, 서악동 일대에 소재한 여러 고분들이 발굴조사가 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서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하는 고적조사사업은 재정난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선고적연구회가 발족되고 여러 곳의 기부금을 수령하면서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고적연구회는 구로이타 가츠미(黑板勝美)의 주도로 1931년 8월에 설립되었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사무국을 두고 경주와 평양 그리고 부여에 각각 연구소를 설치한 후 지역별 고적조사를 실시하였다. 1931년 설치된 경주연구소에는 아리미츠 쿄이치(有光教一) 연구원과 조수 1사람이 근무하면서 각종 고적조사를 맡게 된다.[51] 이때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에

50) 당시 총독부박물관 사무실에는 〈慶州邑南古墳群〉의 분포도가 보존되어 있었는데 지적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동서 약 1㎞, 남북 약 1.5㎞ 범위에 분포하는 200여기의 고분의 명확한 분구와 그 형태를 녹색으로 표시하고 번호를 붙여서 표시한 것이라고 한다.
有光教一·藤井和夫編, 2000, 「慶州路西洞215番地古墳發掘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遺稿Ⅰ』, 東洋文庫, p.124.
차순철, 2004, 「경주 신라고분의 호수부여에 대하여」 -일제 강점기에 부여된 구분번호를 중심으로-, 『慶硏考古』 창간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51) 아리미츠 쿄이치(有光教一)는 조선고적연구회 경주연구소에서 조수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사람은 조수 1명이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조선고적연구회 관련문서에는 아리미츠를 1931년 9월 8일자로 전임연구원 발령을 촉탁을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본인은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有光教一·藤井和夫編, 2000, 「慶州皇吾里26號墳發掘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遺稿Ⅰ』, 東洋文庫, p.2.

있어서 일본 궁내성의 하사금과 기타 보조금은 경주연구소의 신라문화연구사업에 충당하였고, 일본학술진흥회의 보조금은 오로지 평양의 낙랑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에 사용하였다. 1931~45년까지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신라고분은 이전까지 축적된 연구성과에 힘입어서 조사대상과 내용, 발굴기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발굴조사된 고분을 살펴보면 시내지역인 황남동, 황오동일대의 적석목곽분을 비롯하여 충효동과 서악동의 횡혈식석실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신라 묘제의 다양성과 여러 기의 분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표 7〉 참조)

표 7. 1930~1939년대 발굴조사된 신라고분

번호	조사연도	유 적 명	참 고 문 헌
1	1931	皇南里 82號墳	有光敎一, 1935,「慶州皇南里第八十二號墳·八十三號墳調査報告」,『昭和六年度 古蹟發掘報告』第一册, 朝鮮總督府.
2	1931	皇南里 83號墳	有光敎一, 1935,「慶州皇南里第八十二號墳·八十三號墳調査報告」,『昭和六年度 古蹟發掘報告』第一册, 朝鮮總督府.
3	1932	忠孝里 1~10號	有光敎一, 1937,「慶州忠孝里石室古墳調査報告」,『昭和七年度 古蹟調査報告』第二册, 朝鮮總督府.
4	1932 9.27~12.23 1933 8.23~10.31	皇吾里16號墳	有光敎一, 1936,「新羅金製耳飾最近の出土例に就いて」,『考古學』第7卷 第6號, 東京考古學會. 有光敎一 · 藤井和夫編, 2000,「慶州皇吾里26號墳發掘調査報告」,『朝鮮古蹟研究會遺稿 Ⅰ』, 東洋文庫.
5	1933	皇吾里54號墳	有光敎一, 1934,「皇吾里 第54號墳 甲乙二塚」,『昭和八年度 古蹟調査槪報』, 朝鮮總督府.
6	1933 4.7~22	路西里215番地 古墳	有光敎一·藤井和夫編, 2000,「慶州路西里215番地古墳發掘調査報告」,『朝鮮古蹟研究會遺稿 Ⅰ』, 東洋文庫.
7	1934	皇南里14號墳	齋藤忠, 1937,「慶州皇南里第百九號墳·皇南里第十四號墳調査報告」,『昭和九年度 古蹟調査報告』第一册, 京城, 朝鮮總督府.
8	1934	皇南里109號墳	齋藤忠, 1937,「慶州皇南里第百九號墳·皇南里第十四號墳調査報告」,『昭和九年度 古蹟調査報告』第一册, 京城, 朝鮮總督府. 李熙濬, 1987,「慶州 皇南洞 第109號墳의 構造 再檢討」,『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Ⅰ)』, 一志社.
9	1936	皇吾里98-3番地 古墳	齋藤忠, 1937,「慶州皇吾里古墳の調査」,『昭和九年度 古蹟調査報告』第一册, 京城, 朝鮮總督府.
10	1936	忠孝里 無名墳	齋藤忠, 1937,「慶州に於ける忠孝里盜掘古墳の調査」,『昭和十二年度 古蹟調査報告』, 京城, 朝鮮總督府.
11	1939	慶州·高靈所在古墳4基	

1934년에는 새로이 조선고적연구회 경주연구소에 소속된 사이토 타다시(齋藤忠)에 의해서 황남동 109호분이 조사되었다. 한 분구내에 상하로 중복된 다곽식 적석목곽분으로 3곽(주곽)과 4곽(부곽)에서 출토된 고배와 장경호 등 신라토기는 이전과 다른 고식의 형태로 이후 적석목곽분의 발생연대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는 분구와 호석에 대한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표형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고분들 사이의 선후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횡혈식석실분에 대한 조사에서는 연도부와 문비시설, 시상대 그리고 제의와 관련된 여러 유물의 출토위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유물에 대한 상세한 사진과 기술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석실분 발굴조사에 있어서 분구 정상부에서 굴착해서 석실의 뚜껑돌을 확인한 후, 내부 석실을 조사하고 연도부로 뚫고 나오는 방법은 묘도부의 개축에 대한 수리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나고 있다. 이는 당시 묘도부에 대한 조사방법이 아직 정립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고적연구회는 발굴조사 후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모든 유물을 귀속시킨 것이 아니라 조선고적연구회 이사장의 판단에 의해서 토쿄제실박물관(현 토쿄국립박물관)이나 개인에게 유물을 기증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이 반으로 나뉘어서 개별적으로 관리보관이 이루어지기도 했다.[52]

조선고적연구회의 발굴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주지역의 신라 적석목곽분에 대한 발굴조사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그 원인으로는 부여 등지로 조선고적보존회의 사업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연구원 부족과 전쟁으로 인한 연구목적의 발굴수행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Ⅲ. 맺음말

근대 초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의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수집활동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를 비롯한 일본인 관학파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886년부터 한국의 고분과 출토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방한조사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1904년 세키노가 한국에서 조사한 건축조사 결과보고서인 『한국건축조사보고

52) 아리미츠 쿄이치에 의하면 경주 노서동 215번지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1934년 조선고적연구회 이사장인 이마이다 키요노리(今井田清徳)의 기증에 의해서 동일유물이라도 반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반은 동경제실박물관에 보관되었다고 한다.
有光教 ‥藤井和夫編, 2000, 「慶州路西里215番地古墳發掘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遺稿Ⅰ』, 東洋文庫, p.131 註 2 참조.

(韓國建築調査報告)』에는 오릉을 비롯한 여러 고분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된 이후, 1906년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최초로 소금강산에 위치한 '북산고분(北山古墳)'과 황남동 남총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적석목곽분과 횡혈식석실분의 구조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이 이루어졌다. 1909년 건축학을 전공한 야츠이 세이이치(谷井第一)가 서악동 석침총 발굴조사에서 작성한 석실의 평면도와 단면도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최초로 제작된 유구실측도면으로 수치가 표현된 점에서 이전의 스케치된 그림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이후 발굴조사에서도 이러한 유구 실측도면의 작성은 계속 이어진다. 이마니시 류와 야쯔이 세이이치는 신라고분의 입지적 특징, 분구의 형태와 규모, 출토유물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적석목곽분과 횡혈식석실분은 서로 연대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에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과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을 시행하고 고적조사위원회와 박물관협의회를 설치했다. 박물관이 활동하게 되면서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유적을 조사하는 사업들은 모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얻어야 됐다. 1921년 금관총 발굴조사와 1926년 서봉총 발굴조사 이후 경주지역의 대형 적석목곽분은 화려한 금관과 금제품을 비롯한 출토유물로 주목을 받게 되지만, 전국 각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신라고분들에 대한 보고서 발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미발간 보고서가 간행되었지만, 서봉총과 같은 중요 고분에 대한 보고서가 아직 출판되지 못한 점은 당시의 한계로 볼 수 있다. 1920년대 후반에는 노모리 켄(野守健)이 지적도를 기초로 제작한 경주고분 분포도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155기의 고분의 규모와 위치를 명기한 자료로 시내에 소재한 여러 고분군의 전체 모습을 확인시켜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1930년대부터 아리미츠 쿄이치(有光教一)와 사이토 타다시(齋藤忠)는 다수의 적석목곽분과 횡혈식석실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한 묘제 안에 여러 가지 형식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복잡하게 중복된 모습으로 노출된 적석목곽분에 대한 발굴조사경험은 이전에 이루어진 발굴조사와 보고서간행 등에 있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일본인 연구자들은 1886~1945년까지 신라고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행하였다. 이들은 초기에는 메이지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한국이 식민지화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고고, 미술, 건축, 인류학, 민속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루어진 신라고분 연구는 적석목곽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조사방법과 확인된 유구에 대한 해석은 현재와 비교해 볼 때 오류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이 신라고분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조사한 목적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와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경주, 부여, 공주, 평양, 함안, 김해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었고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는 왜곡된 시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신라고분을 발굴

조사한 사람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은 개인 연구자에서 점차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가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재정지원이 줄자 민간지원에 의한 박물관 연구원 중심의 조사로 변화한다. 물론 공적인 발굴조사 외에도 개인적인 목적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졌지만 이는 대부분 도굴목적에 의한 것이며, 금관총의 발굴조사와 같은 일은 일시적인 돌발상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 초기에 이루어진 신라고분 조사에 있어서 적석목곽분보다 횡혈식석실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먼저 이루어졌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적석목곽분의 구조적 특징 때문으로 생각된다. 목곽 상부에 많은 양의 돌을 높게 쌓아올린 적석목곽분의 적석부를 분구 중앙을 가로지르는 트렌치를 판 후 내부를 조사하는 당시의 발굴조사 기법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906년과 1909년에 각각 적석목곽분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경주시 외곽 구릉 위쪽에 입지한 횡혈식석실분에 대한 조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동천동·보문동·서악동 등에 위치한 여러 고분들에 대한 발굴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점은 적석목곽분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보다 조사가 용이한 석실분으로 조사자의 시각이 옮겨졌다고 생각된다. 결국 적석목곽분에 대한 발굴조사는 1926년 금관총의 발굴이후에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지난 근대~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신라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때 조사된 여러 유적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재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고고학사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문 단행본 및 보고서

國立中央博物館, 2000,『慶州 路東里四號墳』

이선복, 1988,『고고학개론』, 이론과 실천

정규홍, 2006,『우리 문화재 수난사』, 학연문화사

崔秉鉉, 1987,『新羅古墳研究』, 一志社

홍보식, 2003,『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關野貞 著, 姜奉辰 譯, 1990,『韓國의 建築과 藝術』, 産業圖書出版公社

다카사키 소지 지음, 이규수 옮김, 2006,『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군인에서 상인, 그리고 게이샤까지-』, 역사비평사

2. 국문 논문

저자미상, 1968,「慶州에서 遺蹟 露出」,『考古美術』第九卷 第四號 通卷九十三號, 韓國美術史學會

姜仁求, 1984,「新羅王陵의 再檢討(1) -柳花溪의「羅陵眞贋說」과 관련하여-」,『東方學志』4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姜仁求, 1984,「新羅王陵의 再檢討(2) -脫解王陵-」,『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通川文化社

姜仁求, 1984,「新羅王陵의 再檢討(3)」,『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李根直, 1986,「新羅王陵 關係記事의 檢討 -《三國史記》初期紀錄을 中心으로-」,『慶州史學』第14輯, 慶州史學會

姜仁求, 1990,『新羅五陵』測量調査報告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李根直, 1995,「『花溪集』羅陵眞贋說 譯註討」,『慶州史學』第14輯, 慶州史學會

李根直, 2000,「新羅 陵墓의 傳承過程 研究」,『慶北史學』23輯 -槐山文暻鉉敎授停年紀念特輯號- , 慶北史學會

李根直, 2006,『新羅 王陵의 起源과 變遷』, 嶺南大學校 大學院 文化人類學科 博士學位論文

李熙濬, 1987,「慶州 皇南洞 第109號墳의 構造 再檢討」,『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Ⅰ)』, 一志社

李熙濬, 1990,「解放前의 新羅·伽耶古墳 發掘方式에 대한 研究 -日帝下 調査報告書의 再檢討(1)」,『韓國考古學報』24輯, 韓國考古學會

차순철, 2004,「경주 신라고분의 호수부여에 대하여 -일제 강점기에 부여된 구분번호를 중심으로-」,『慶硏考古』창간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3. 일본어 단행본 및 보고서

E. S. Morse 著, 近藤義郎・佐原眞 訳, 1983,『大森貝塚』, 岩波文庫

Victor Harris・上田宏範・大塚初重・後藤和雄, 2003,『WILLIAM GOWLAND - THE FATHER OF JAPANESE ARCHAEOLOGY-』, 朝日新聞社

關野貞, 1904,「韓國建築調査報告」,『東京帝國大學工科學術報告』第六號

朝鮮總督府編, 1915,『朝鮮古蹟圖譜』三

朝鮮總督府編, 1915,『朝鮮古蹟圖譜』五

大坂六村, 1931,『趣味の慶州』, 慶州古蹟保存會

藤井惠介・早乙女雅博・角田眞弓・西秋良宏 編, 2005,『關野貞アジア踏査』東京大學コレクシセョンⅩⅩ,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慶州金冠塚と其遺寶」,『古蹟調査特別報告』第3冊, 朝鮮總督府

浜田靑陵, 1932,『慶州の金冠塚』, 慶州古蹟保存會

田中萬宗, 1930,『朝鮮古蹟行脚』, 泰東書院

小泉顯夫, 1986,『朝鮮古代遺蹟の遍歷』, 六興出版

齋藤忠, 1937,「慶州皇南里第百九號墳・皇南里第十四號墳調査報告」,『昭和九年度 古蹟調査報告書』第一册, 朝鮮總督府

齊藤忠, 1980,『年表てみる日本の發掘・發見史』, ①奈良時代~大正篇, NHK ブックス 370, 日本放送出版協會

齋藤忠, 1985,『考古學史の人びと』, 第一書房

有光敎一・藤井和夫編, 2000,『朝鮮古蹟研究會遺稿Ⅰ』, 東洋文庫

4. 일본어 논문

저자미상, 1898,「韓國古墳發見ノ高杯及石鏃」,『東京人類學會報告』, 第三十卷 第百五拾號, 東京人類學會

저자미상, 1900,'小林氏の韓國通信',「雜報」『東京人類學會雜誌』第十五卷 第百六十七號, 東京人類學會

岡倉曲三郎, 1895,'朝鮮の墳墓',「雜報」『東京人類學會雜誌』第十卷 第百五號, 東京人類學會

高橋潔, 2001,「關野貞を中心とした朝鮮古蹟調査行程」-1909年-(明治42年)~1915年(大正4年)-,『考古學史研究』第9號 -特輯 關野貞と朝鮮古蹟調査-, 京都 木曜クラブ

高正龍, 1996,「八木訳三郎の韓國調査」,『考古學史研究』第6號, 京都木曜クラブ
谷井濟一, 1910,「韓國慶州西岳の一古墳に就いて」,『考古界』第八編 第二十號, 考古學會
谷井濟一, 1910,「慶州の陵墓」,『朝鮮講演』第一輯, 朝鮮日報社
谷井濟一, 1910,「慶州の陵墓」,『朝鮮藝術之研究』, 度支部建築所
谷井第一, 1913, '慶州通信',「彙報」,『考古學雜誌』第三卷 第十一號, 考古學會
谷井第一, 1916, '朝鮮 慶州發見釉塼(口繪解說)',「彙報」,『考古學雜誌』第六卷 第八稻浜田耕關野貞, 1910,「朝鮮遺蹟 一覽(地方別)」,『朝鮮學術之研究』
關野貞 · 谷井濟一 · 票山俊一, 1911,「朝鮮遺蹟調査略報告」,『朝鮮芸術之研究續編』
今西龍, 1906,「新羅舊都慶州附近の古墳」,『歷史地理』第十一卷 第一號 歷史地理一百號記念百名家論集
今西龍, 1908,「慶州に於ける新羅の墳墓及び基遺物に就て」(第一回),『東京人類學會雜誌』第二百六十九號, 東京人類學會
內田好昭, 2001,「日本統治下の朝鮮半島における考古學的發掘調査(上)」,『考古學史研究』第9號 -特輯 關野貞と朝鮮古蹟調査-, 京都 木曜クラブ
淡崖, 1886, '朝鮮ニテ堀出セル土器及ビ'石器',「雜記」,『東京人類學會報告』第二卷 第十號, 東京人類學會
大庭重信, 1996,「『人類學雜誌』に見る周邊地域關聯記事の傾向」,『考古學史研究』第6號, 京都木曜クラブ
大坂金太郎, 1931,「新羅廢寺址の寺名推定に就て」,『朝鮮』第197號, 朝鮮總督府
藤田亮策, 1931,「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朝鮮』第199號, 朝鮮總督府
藤田亮策, 1953,「朝鮮古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 黑板博士紀念會
山本雅和, 2001,「文化徵標としての古墳」-建築史學者關野貞の古蹟調査」,『考古學史研究』第9號 -特輯 關野貞と朝鮮古蹟調査-, 京都 木曜クラブ
小泉顯夫, 1927,「慶州瑞鳳塚の發掘」,『史學雜誌』第38編 第1號, 史學會
若林勝芳, 1887, '朝鮮土器',「雜記」,『東京人類學會報告』, 第二卷 第十四號東京人類學會
有光敎一, 1934,「皇吾里 第54號墳 甲 · 乙二塚」,『昭和八年度 古蹟調査槪報』, 朝鮮總督府
有光敎一, 1935,「慶州皇南里第八十二號墳 · 八十三號墳調査報告」,『昭和六年度 古蹟發掘報告』第一冊, 朝鮮總督府
有光敎一, 1937,「慶州忠孝里石室古墳調査報告」,『昭和七年度 古蹟調査 報告』第二冊, 朝鮮總督府
有光敎一, 1955,「慶州邑南古墳群について」,『朝鮮學報』8輯, 朝鮮學會
鳥居龍藏 1906,「滿洲調査復命書」,『史學雜誌』第十七編 第二 · 三 · 四號, 史學會

田春水, 1915,「朝鮮共進會美術館の一瞥」,『考古學雜誌』第六卷 第三號, 考古學會

齋藤忠, 1937,「慶州皇吾里古墳の調査」,『昭和九年度 古蹟調査報告』第一册, 京城, 朝鮮總督府

齋藤忠, 1937,「慶州に於ける忠孝里盜掘古墳の調査」,『昭和十二年度 古蹟調査報告』, 京城, 朝鮮總督府

早乙女雅博, 2001,「新羅の考古學調査「一 ○○年」の研究」,『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Abstract

An Study on Cognition and Investigation of Silla Tumuli in the Japanese Imperialistic Rule

Cha, Soon Chul

Japanese government college researchers, including Sekino Tadashi(關野貞), have conducted research studies and collected data, on overall Korean cultural relics as well as Silla tumuli(新羅古墳) in the early modern time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ic rule. They were supported by the Meichi government in the early stage of research, by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and by their related organizations after Korea was colonialized to carry out investigations on Korean antiquities, fine arts, architecture, anthropology, folklore, and so on. The objective for which they prosecuted inquiries into Korean cultural relics, including Silla tumuli, may be attributed to the purport to find out such data as needed for the theoretical foundation to justify their colonialization of Korea. Such a reason often showed locally biased or distorted views.

Investigations and surveys had been incessantly carried out by those Japanese scholars who took a keen interest in Korean tumuli and excavated relics since 1886. 'Korea Architecture Survey Reports' conducted in 1904 by Sekino in Korea gives a brief introduction of the contents of Korean tumuli, including the Five Royal Mausoleums(五陵). And in 1906 Imanishi Ryu(今西龍) launched for the first time an excavation survey on Buksan Tumulus(北山古墳) in Sogeumgangsan(小金剛山) and on 'Namchong(南塚)' in Hwangnam-dong, which greatly contributed to the foundation of a basic understanding of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積石木槨墳) and stone chambers with tunnel

entrance(橫穴式石室墳). The ground plan and cross section of stone chambers made in 1909 at his excavation survey of seokchimchong(石枕塚) by Yazui Seiyichi(谷井第一) who majored in architecture made a drawing in excavation survey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which numerical expressions are sharply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sketched ones. And even in the following excavation surveys this kind of drawing continued.

Imanishi and Yazui elucidated that wooden chambers with stone mound chronologically differs from the stone chambers with tunnel entranc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surveys of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Silla tumuli, the forms and size of tomb entrance, excavated relics, and so forth.

The government-general put in force 'the Historic Spots and Relics Preservation Rules' and 'the Historic Spots Survey Council Regulations' in 1916, establishing 'Historic Spots Survey Council and Museum Conference. When museums initiated their activities, they exhibited those relics excavated from tumuli and conducted surveys of relics with the permission of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A gold crown tomb(金冠塚) was excavated and surveyed in 1921 and a seobong tomb(瑞鳳塚) in 1927. Concomitantly with this large siz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attracted strong public attention. Furthermore, a variety of surveys of spots throughout the country were carried out but publication of tumuli had not yet been realized. Recently some researchers's endeavors led to publish unpublished reports. However, the reason why reports of such significant tumuli as seobong tomb had not yet been published may be ascribed to the critical point in those days. The Gyeongju Tumuli Distribution Chart made by Nomori Ken(野守健) on the basis of the land register in the late 1920s seems of much significance in that it specifies the size and locations of 155 tumuli and shows the overall shape of tumuli groups within the city, as used in today's distribution chart. In the 1930s Arimitsu Kyoichi(有光敎一) and Saito Tadashi(齋藤忠) identified through excavation surveys of many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and stone chambers with tunnel entrance, that there were several forms of tombs in a tomb system. In particular, his excavation survey experience of thos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which were exposed in complicated and overlapped forms

shows features more developed than that of preceding excavation surveys and reports publication, and so on.

The result of having reviewed the contents of excavation surveys of Silla tumuli excavated in modern time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ic rule awakens us to the need of reexamining the contents of many historic spots surveyed at that time. Therefore this reexamination is considered to be a significant project in arranging the history of archaeology in Korea.

KeyWords : Japanese imperialistic rule(日帝强占期), Silla tumuli(新羅古墳), excavation survey(發掘調査), Chosun government-general(朝鮮總督府).